

*** 한국의 전통성에 기초한 국내대학 교육현황과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 4년제 대학의 실내·주거디자인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ducation System and Awareness Survey Based on the Korean Identity

- Focused on the Interior Design Programs in Domestic Universities -

천진희* / Chun, Jin-Hee

오혜경** / Oh, Hye-Kyung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theory education system and students' awareness about Korean identity by analysing four-year curricula of interior design programs in domestic universities and questionnaires of 468 junior and senior students who have taken the history of interior design.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of continuous research for establishing new model of education related to Korean tradition.

Following three issues - ①degree of knowledge and awaren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terior design about Korean identity, ②extent of the coverage of theoretical education for korean tradition in curricula of interior programs, ③extent of the application of Korean identity as a design theme in studio classes - were mainly analysed.

키워드 : 한국의 전통성, 교육현황, 의식조사,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제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는 국외 경쟁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적 정서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과 디자이너의 배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적 디자인의 발굴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학계와 업계 모두 새 천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자인 교육과 실무를 재정비하고,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실내디자인

1965년경에 태동된 우리나라의 실내디자인 분야는 1980년대 의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

며 한국성이 부각된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축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양적·질적 발전의 계기가 되어 1991년에는 건설입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업이 전문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³⁾ 또한 90년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디자인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분야로 인식되어 육성방안이

1)한국성이란 한국의 전통성(Korean tradition), 혹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일컬어 통용되는 용어로 건축 분야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명쾌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역사의 연속성 중에서 어느 시대까지를 한국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시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 다른 원인은 우리 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구별된 용어가 필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성을 모더니즘과 대비되는 시대적 산물로 간주하여 남의 문화에서 찾을 수 없는 창작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한국의 근대화 이전, 즉 조선시대까지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호텔로비에서 한국성에 기초한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제22호, 1997, p53

2)대한전문건설협회의 통계연보 2000에 따르면, 실내건축 면허를 가진 의장공사 업체 수는, 1991년 927개, 1995년 1,596개, 1999년 1,814개이며, 2000년 5월 현재 2,310개에 이르고 있다. 연간 수주계약실적도 1991년 7000억, 1995년도 1조 7800억, 1999년도 5조원 정도에 육박하여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3)Interior Architecture vol.2,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회, 1999, p.15

* 정희원,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 전공 조교수

** 정희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 전공 교수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KRF-00-I0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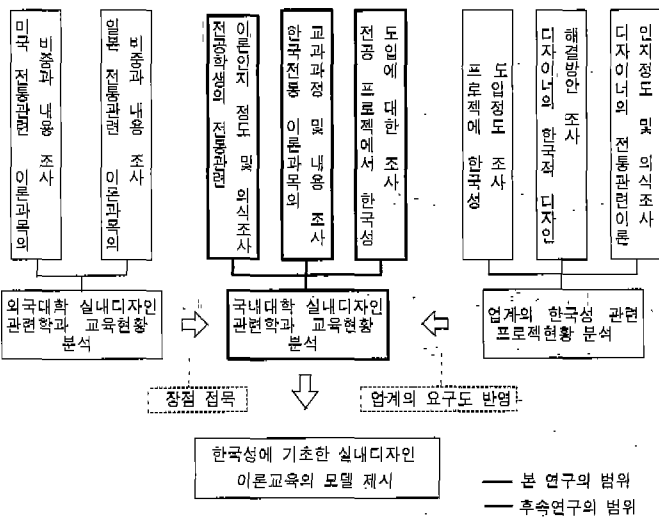
모색되고 자원이 늘었으며, 실내디자인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디자인 영역에 비해 정부 지원과 업계의 기술축척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계의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대학교육에서 한국성에 기초한 이론교육의 필요성

국내 실내디자인 교육계는 1988년 4년제 대학에서 실내디자인학과가 개설된 이래 엄청난 양적·질적 성장을 하였으나 디자인 시장이 개방된 현 시점에서 대외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교육 환경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체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기초로서 한국전통에 관한 이론교육을 강화하여 학업을 통해 축적한 지식기반을 실기과목에서 접목시켜보도록 하며 이러한 경험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교육계가 담당할 몫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21세기에 적합한 다방향, 다층적 내용이 결합된 한국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교육의 모델 제시를 위한 일련의 과정<그림1> 중 일차 단계인 국내대학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의 한국성 관련 교육 현황에 관한 것으로 세부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1) 한국전통 이론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 내용 조사:

역사관련 이론과목이 전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교과내용이 한국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도 포함되어 있는지, 유사문화권과의 차별성을 인지할 수

4)한국실내디자인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2년제 66개교, 4년제 42개교이며 22개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실내디자인학회 회원명부, 사단법인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pp.147-153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2) 실내·주거디자인 전공학생의 전통관련 이론 인지 정도 및 의식 조사:

실내·주거디자인 전공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전통과 지역의 특수한 문화, 그리고 유사문화권의 전통디자인에 대한 관심 정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기초지식을 파악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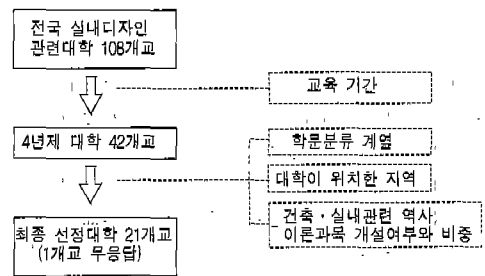
(3)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과 해결 방법에 대한 조사:

실기 전공과목에서 한국성 도입 경험여부와 한국전통에 대해 축적한 이론적 지식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위함.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은 <그림2>의 과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최종 내용조사 대상 대학은 국내 4년제 대학⁵⁾의 13개 디자인 계열과 7개 생활과학 계열⁶⁾의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나 전공의 20사례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위 대학의 3, 4학년 학생으로 디자인 계열:305명, 생활과학 계열:163명, 총 468명이다.



<그림 2> 조사대상 선정 과정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인 지역의 전통성에 대한 이론교육 고찰을 위해, 서로 다른 도시에 위치한 대학이며, 지역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대상을 일부 임의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초조사 결과 서양건축사, 서양실내디자인사, 서양주택사 등만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연구에서 배제시켰다. 이것은 연구내용이 한국성에 관한 것으로,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

5)예비조사 결과 2년제의 경우, 교육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교육목표가 4년제와 다소 달라 이론 교육이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기보다는 디자인론 등의 과목에서 디자인의 전반 이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한국전통에 관한 이론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연구대상을 4년제로 국한하였다.

6)전국의 실내디자인관련 대학은 디자인 계열, 생활과학 계열, 건축 계열로 크게 분류되며 생활과학 계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높아 25%에 해당하는 11개교에서 실내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디자인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졸업 후 업계로의 진출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디자인학회 회원명부, pp.147-153

여부와 기초이론 과목으로 한국성 관련 이론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프로젝트 해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작성

본 연구의 주된 조사내용은 한국 전통관련 이론 교육이나, 이론과 실기과목의 연계성, 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통 디자인에 대한 의식과 기초지식 정도 조사를 통해, 이론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추출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①한국전통 이론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및 내용 조사<표1>, ②실내·주거디자인 전공학생의 전통관련 이론 인지 정도 및 의식 조사<표2>, ③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과 해결 방법에 대한 조사<표3> 등 크게 3영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분석의 틀이 되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내용조사 항목<표1>

- 역사관련 과목의 명칭
- 총 학점 수 대비 이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
- 교육목표(<표 1>의 지면 부속으로 표에서는 제외시키고 3.1에서만 다름)
- 한국의 전통관련 내용(실내디자인 시 필요한 고건축을 비롯한 유형적, 무형적 요소)의 유무 및 비율
- 아시아 주변국의 전통관련 내용의 유무 및 비율
- 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유무

(2) 설문조사 문항

<표2>

- 한국인의 미의식이나 조형의식이 서양인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인지 정도
- 한국의 미와 조형형성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 사회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 대한 인지 정도와 지식 축적 방법
- 한국 전통건축이나 실내디자인에 관한 이론과목 수업의 필요 정도
-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을 시, 한국전통 관련 이론 중 필요한 내용과 필요 정도
- 한국, 중국, 일본 등 유사 문화권 나라의 전통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의 차이점 또는 유사점에 대한 인지 정도
- 자신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초이론 학습 경험 여부
- 유사 문화권 나라의 전통디자인에 관한 이론수업의 필요 정도

<표3>

- 전공실기 과목에서 한국성 도입 경험 여부
- 한국성을 테마로 디자인해 보았을 시 동기,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기초이론 습득의 필요 충분 정도, 학교 수업 이외의 해결 방법
- 프로젝트 결과의 한국성 표현에 대한 만족 정도
- 한국성을 테마로 디자인해보지 않았을 시의 원인과 전공실기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 필요 정도
- 자신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평가 정도
- 전공실기 과목에서 자신의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 도입 경험 여부
- 지역성을 테마로 디자인해 보았을 시 동기,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기초이론 습득의 필요 충분 정도, 학교 수업 이외의 해결 방법
- 프로젝트 결과의 지역성 표현에 대한 만족 정도
- 지역성을 테마로 디자인해보지 않았을 시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론의 필요 정도와 전공실기 프로젝트에서 지역성 도입 필요 정도

2.3. 자료수집

연구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0년 11~12월 인터넷

의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및 계열' 검색⁷⁾ 결과와,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발간한 실내디자인학회 회원명부⁸⁾의 내용 분석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관련 조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충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이후의 자료수집은 2001년 1월~3월 설문지 조사와 내용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조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 대학 21개교에 630여부의 설문지를 송부하여 이 중 회수된 20개교의 468부만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내용조사를 위해서는 대상대학의 전학년 교과과정과 교과내용 파악을 목적으로 교과목 요람, 교수 강의 계획표 등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송부받아 자료화하였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분석의 틀에 따라 빈도분포와 백분율로 단순통계 처리되었으며, 응답하지 않은 일부 문항은 무응답 처리되었다. 또한 '한국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 축적 방법', '한국전통 관련 이론 중 필요한 내용' 등 중복 대담이 가능한 일부 문항은 해당사항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자의 생각이나 경험에 따라 연계된 질문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상대학의 지역 분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등의 광역시, 부산직할시 등은 편의상 소속되어 있는 '도'에 포함시켰으며, 분석결과는 대학별, 도별, 학문 계열별로 정리하여 이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조사결과 및 논의

3.1. 한국전통 관련 이론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및 교과 내용 조사 결과

(1) 역사관련 과목 명칭과 총 학점수 대비 비율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상 대학은 총 취득학점수가 130~140학점(1사레만 120학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역사관련 이론 과목의 학점은 16개교가 3학점으로 이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낮았다. 과목의 명칭은 생활과학 계열의 경우 주거사, 한국주거사, 한국주거의 이해, 한국주택사, 실내디자인사였으며, G대의 경우 실내디자인사 과목에서는 서양의 건축사만을 다루고 있었다. 디자인 계열의 경우, 교과목 명칭은 한국건축사, 실내건축사, 실내디자인사, 실내건축디자인사, 장식미술사, 한국실내건축사, 한국주거사, 호남역사와 문화, 건축 및 실내디자인사였으며, I대, K대, N대, P대, T대 등 5사레는 교과내용이 서

7) <http://www.cuk.ac.kr/kor/daehak/main2html>

8) 실내디자인학회 회원명부, pp.147~153

<표 1> 한국전통 관련 이론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및 교과내용 조사 결과

계열	지역	대학 명칭	역사관련 과목명칭	과목의 학점수/ 총 학점수	과목에서 한국의 전통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동양의 전통관련 내용의 유무		과목에서 동양의 전통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지역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생활과학 계열	서울특별시	A	주거사 (전공필수)	3/140	16/16 (100%)		○	0/16 (0%)	○	
		B	한국주거사 (전공선택)	3/140	15/16 (94%)	○		1/16 (6%)	○	
		C	한국주거의 이해 (전공선택)	3/130-140	16/16 (100%)		○	0/16 (0%)	○	
	경기도	D	주거사 (전공선택)	3/130	8/16 (50%)	○		1/16 (6%)	○	
	경상남도	E	한국주거사 (전공필수)	3/140	16/16 (100%)		○	0/16 (0%)	○	
		F	한국주택사 (전공선택)	3/140	16/16 (100%)		○	0/16 (0%)	○	
		G	실내디자인사 (전공선택)	3/140	0/16 (0%)		○	0/16 (0%)		○
소 계				3/138	78%	2	5	1.7%	6	1
디자인 계열	서울특별시	H	한국건축사 (전공선택)	2/140	16/16 (100%)		○	0/16 (0%)	○	
		I	실내건축사 (전공선택)	3/130	0/16 (0%)		○	0/16 (0%)		○
		J	실내건축사 (전공선택)	3/140	3/15 (20%)	○		1/15 (7%)	○	
		K	실내디자인사 (전공필수)	3/120	0/16 (0%)		○	0/16 (0%)		○
	경기도	L	실내디자인사II (전공선택)	3/140	2/16 (13%)	○		2/16 (13%)	○	
	충청남도	M	한국건축과 실내(전공선택)	2/140	15/16 (94%)	○		1/16 (6%)	○	
		N	실내건축디자인 (전공선택)	3/140	0/16 (0%)		○	0/16 (0%)		○
	경상남도	O	한국건축과 실내(전공선택)	3/140	16/16 (100%)		○	0/16 (0%)	○	
		P	장식미술사 (전공선택)	2/140	0/16 (0%)		○	0/16 (0%)		○
		Q	한국실내건축사 (전공선택)	3/140	16/16 (100%)		○	0/16 (0%)	○	
		R	한국주거사 (전공필수)	3/140	16/16 (100%)		○	0/16 (0%)	○	
	전라남도	S	호남역사와문화 (교양선택)	2/140	16/16 (100%)		○	0/16 (0%)	○	
		T	건축및실내디자인사 (전공필수)	3/140	0/16 (0%)		○	0/16 (0%)		○
소 계				27/138	48%	3	10	2%	8	5
총 계				28/138	59%	5	15	1.9%	14	6

* 지역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역사관련 이론과목의 강의계획표 분석 결과, S대의 '호남역사와 문화'를 제외하고는 L대 만이 일부 다루고 있었으나, 실기과목이나 기타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졌을 시는 교과내용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간주하였음.

양의 건축과 실내역사만을 다루고 있어 디자인 계열에서 한국성 관련 이론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T대에서는 '호남역사와 문화'라는 과목이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어 지역성에 기초한 이론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목 요람 분석 결과, G, I, K, N, P, T대를 제외한 14사례 중 7사례에서는 위의 과목 외에 서양의 주거, 서양의 실내디자인사 I II, 장식미술사, 서양의 건축사 등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어 서양의 건축·실내 디자인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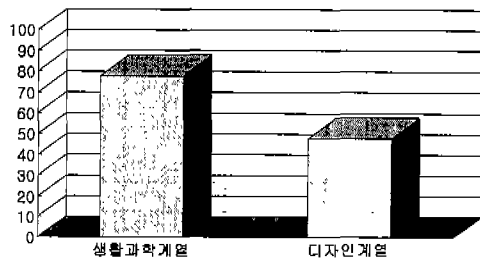
(2) 교육목표

과목의 명칭에 따라 교육목표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거사, 주택사 등은 우리나라 주거형성과 과정, 주택의 구조 및 양식, 공간구성 등 전통주택으로 영역을 한정시키고 있었던 반면, 실내건축사, 실내디자인사, 건축과 실내 등의 과목은 주택 이외의 한국전통 건축과 실내의 형성배경, 유형별 특성, 조형원리 등도 다루고 있었다. 더욱이 K대, M대, Q대 등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갖춰 현대적 실내공간에 표현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어 궁극적 목표가 실기과목을 위한 기초이론 습득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B대, D대, J대, L대, M대 등은 그 비중은 적으나 비교문화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전통 역사를 이해토록 교육하고 있었다.

(3) 과목내용에서 한국전통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조사대상 20개교 중 과목의 내용이 서양건축과 실내만을 다루는 대학이 6사례였고 이를 제외한 14사례 조사 결과, 생활과학 계열에서는 6사례중 4사례가 100%, 1사례가 94%, 나머지만 사례가 50% 한국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그 비율이 78%였던 반면, 디자인 계열에서는 8사례 중 5사례가 100%, 나머지 3사례가 94%, 20%, 13% 한국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비율이 48%에 그침을 볼 때 한국성 관련 교육이 양적으로 충분치 못함을 보여주었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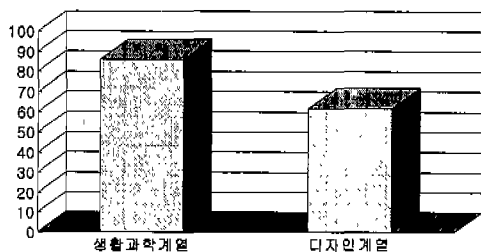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전통 관련내용 비율

(4) 아시아 주변국의 전통관련 내용의 유무 및 비율

20개 조사대상 중 5개교만이 중국, 일본의 전통관련 내용을 교과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그것이 차지하는 시간은 3개교가 16주 수업에 1주, 1개교가 15주 수업에 1주, 나머지 1개교가 16주 수업에 2주를 할당하고 있어 비율(1.9%)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주거와 그 외 건축의 발달 과정, 한국과 일본의 정원 비교, 동양건축과 지역성에 대한 해석 등이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이 교수요목을 통해 파악되었다.

(5) 대학이 위치한 지역적 문화와 관련된 내용의 유무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교과목 요람과 강의계획표만으로는 얻을 수 없어 학과 담당 조교에게 문의한 결과, 14개 대학의 경우,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지역문화 관련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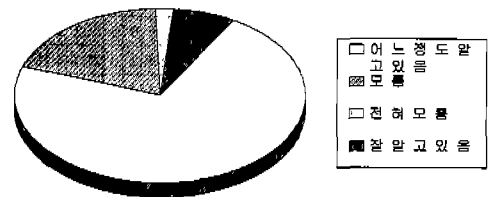
비록 한국성 관련 이론과목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도 전공실기 과목에서 필요시, 학술답사 등의 연례행사시, 혹은 특강을 통해 지역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답사지

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는 창덕궁, 경복궁, 종묘, 남산 한옥 마을, 암사동 선사유적지, 수원성, 민속촌 등을, 경상남북도의 경우는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통도사, 범어사 등을 예로 들어, 인근의 지역문화 중심으로 답사가 행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생활과학 계열은 7개교 중 6개교가, 디자인 계열은 13개교 중 8개교가 지역문화에 대한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 계열의 관심도가 떨어짐이 드러났다<그림4>.

3.2. 실내·주거디자인 전공 학생의 전통관련 이론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한국인과 서양인의 조형의식 차이에 대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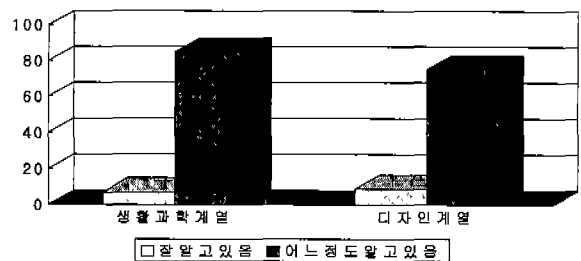
계열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고, 총 응답자 중 72%에 해당하는 336명이 어느정도 알고 있음, 19%가 모름, 7%가 잘 알고 있음, 1%가 전혀 모름으로 답해 대부분의 학생이 위의 사항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으나 20%는 모르거나 전혀 몰라 이에 대한 기초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5>. 또한 교과 내용에 한국성 관련이론이 전혀 없는 6개교 중 I대의 경우는 41%, T대의 경우는 44%가 위의 내용에 대해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론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대학간의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림 5> 한국인과 서양인의 조형의식차이 인지 정도

(2) 한국의 조형형성 배경 인지 정도와 방법

생활과학 계열은 92%가, 디자인 계열은 84%가 잘 알거나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생활과학 계열 학생들이 위의 내용에 대해 지식이 좀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6>.



<그림 6> 한국의 조형형성 배경 인지 정도

이는 <표1> 분석결과, 교과 내용에서 한국전통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학생 468명중 78%에 해당하는 366명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8%에 해당하는 37명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하여 86%가 이에 대한 지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나, T대의 경우, 39%가 위의 내

용을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또한 지식축적 방법에 대해서는 468명의 응답자 중 49%가 대학에서 배움, 26%가 매스컴·강연을 듣고, 17%가 교양서적을 통해, 10%가 고등학교에서 배움 순으로 대답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3) 한국의 전통 관련 이론 과목에 대한 필요 정도와 세부 항목의 필요 정도

이론 과목 필요 정도에 대해 계열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57%의 학생이 매우 필요하며, 41%의 학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목 필요 시, 한국 전통건축, 전통실내공간, 전통가구, 전통문양, 전통 색채에 대한 이론 중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 결과, 실내공간(62%), 건축(52%), 색채(43%), 문양(32%), 가구(30%) 등의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위의 모든 항목에 대해 필요 없거나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계열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순위는 동일하였다.

(4) 한국과 동양의 전통디자인 차이에 대한 인자 정도 및 이에 대한 이론수업의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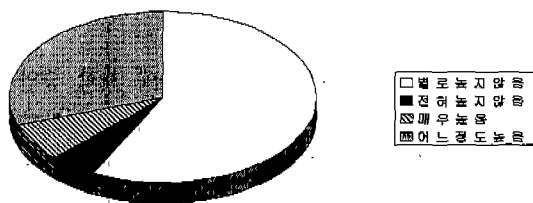
한·중·일 전통디자인의 차이점 및 유사점에 대한 인지 정도는 계열간에 차이가 별로 없었고, 4%의 학생이 잘 알고 있음, 72%의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2%의 학생이 모름으로 응답하여 76%의 학생이 유사권 문화에 대해 어느정도 이상은 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나라의 전통건축과 실내디자인에 관련된 이론 수업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7%가 매우 필요하며, 77%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필요성(94%)에 비해서는 인지정도(76%)가 낮다고 볼 수 있다.

(5) 지역의 특수문화 이론과목에 대한 필요 정도

73%의 학생이 어느정도 필요하며, 8%의 학생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한국의 전통 못지 않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보여, 지역성이 담긴 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6) 지역문화 특수성에 대한 평가정도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의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의 57%가 별로 높지 않음, 5%가 전혀 높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60%이상의 학생이 지역문화에 대해 자긍심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그림7>.



<그림 7> 지역문화 특수성에 대한 평가 정도

또한 계열간에 차이가 커 생활과학 계열 응답자들의 72%가 별로 높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디자인 계열 응답자는 49%가 별로 높지 않다고 응답하여 디자인 계열 학생이 조금 더 자신의 지역문화에 자부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차이도 나타나, 전라남북도 학생들은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높다(57%)고 응답하였고, 충청남북도(38%)와 경상남북도(38%), 서울(36%)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학생들은 1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문화적 자긍심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3.3. 실기과목에서 한국성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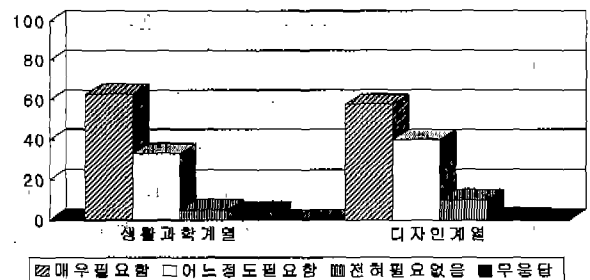
(1)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 경험 여부

전체 응답자의 40%가 실기 프로젝트에서 한국성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중 생활과학 계열 학생의 경우는 29%, 디자인 계열은 46%가 한국성 도입 경험이 있음을 참고할 때 디자인 계열에서는 교과과정과 내용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한국전통에 대한 교육이 더욱 심도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 경험 시, 이유, 이론 습득의 필요 정도, 충분 정도

한국성 도입의 동기에 대해 양 계열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순위는 동일하였다.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60%), 실기 교과목의 기본 테마였으므로(20%), 교·강사가 한국성을 테마로 디자인 해보라고 권유해서(12%) 순으로 응답된 것을 볼 때, 계열을 불문하고 실내디자인 전공학생들의 한국성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 발상과 디자인적 접근을 위해 한국성에 대한 기초이론 습득의 필요 정도에 대해 양 계열 모두 매우 필요하거나(생활과학 계열 67%, 디자인 계열 58%), 어느정도 필요하다(33%, 40%)고 응답해 절대적으로 이론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그림8>.

한국전통에 대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의 양과 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65%가 충분하지 못함, 4%가 전혀 충분하지 못함에 응답하여, 한국성 관련 이론교육은 필요도(97%)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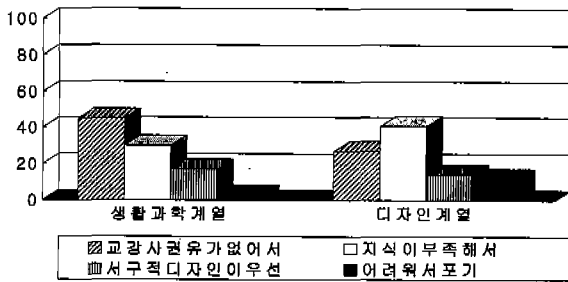
<그림 8>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관련 이론 습득 필요정도

(3)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 시, 수업 이외의 프로젝트 해결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

대부분의 학생이 스스로 참고도서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는다(93%)고 하였고, 전통 건축이나 미술품 답사를 통해 해결한다(41%)에도 복수 응답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전통건축이나 미술품답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가 서울(22%)에 비해 지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전라남북도:53%, 경상남북도:47% 등).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생활과학 계열은 73%, 디자인 계열은 71% 약간 잘 표현되거나 매우 잘 표현되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 경험이 없을 시 이유와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의 필요 정도

한국성을 테마로 디자인 해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 계열 간 차이를 보여 생활과학 계열 학생의 경우, 교·강사가 권유하지 않아서(45%), 한국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30%), 현대나 서구적 디자인이 급선무여서(17%), 시작하였으나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 두었음(3%)의 순으로 답한 반면, 디자인 계열의 경우는 한국성을 다루고 싶었으나 지식이 없어서에 41%, 교·강사가 권유하지 않아서에 27% 답한 것을 볼 때, 디자인 계열 학생의 경우 생활과학 계열 학생의 경우보다 전통관련 지식의 정도가 낮아 프로젝트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그림9>.



<그림 9> 전공 실기 프로젝트에서 한국성을 테마로 디자인하지 않은 이유

또한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 도입에 대한 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 계열 유사한 반응을 보여 대부분의 학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73%), 매우 필요하다(22%)고 응답하였다.

(5) 전공 프로젝트에서 지역문화 도입 경험 여부

계열간의 차이를 보여 생활과학 계열의 학생은 17%, 디자인 계열의 학생은 34%가 전공 프로젝트에서 지역문화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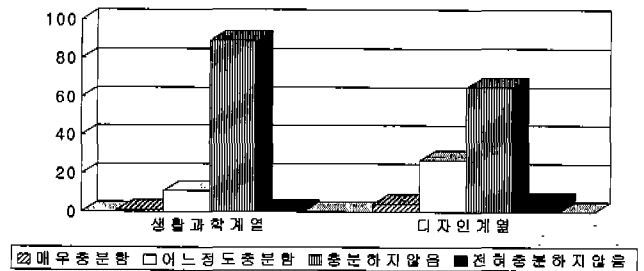
지역 간 차이도 나타나 전라남북도의 경우 지역성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서울(20%)과 충청남북도(19%)는 낮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경기도 D대는 6%, I대는 60%가 지역성 관련 프로젝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격심한 차이를 보였다.

(6) 지역성을 테마로 디자인 해보았을 시 지역 문화에 대한 이론 습득의 필요 정도, 충분 정도

아이디어 발상과 디자인적 접근을 위한 지역성 이론 필요 정도는 계열별 차이가 거의 없었고, 57%가 매우 필요함, 42%가

어느 정도 필요함에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이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의 양과 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생활과학 계열 학생의 경우는 압도적 비율(89%)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디자인 계열의 경우는 64%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계열별 차이를 보였다<그림10>. 그리고 전 학생의 4%만이 매우 충분하거나 어느정도 충분하다(27%)고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필요도(99%)에 비해 충분도(31%)가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지역성관련 프로젝트에서 이론의 충분정도

(7) 프로젝트에서 지역성 도입 시 수업 이외의 프로젝트 해결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

전체 학생의 88%가 스스로 참고도서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았다고 하였고, 38%가 전통 건축이나 미술품 답사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였으며, 12%가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서 생활과학 계열의 학생은 85%가 약간 잘 표현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디자인 계열은 68%가 약간 잘 표현되었으며, 3%가 매우 잘 표현되었다고 응답해 양 계열 모두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전공 프로젝트에서 지역성 도입 경험이 없을 시, 이유와 전공 프로젝트에서 지역성 도입의 필요 정도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다룬 경험은 없으나 도입의 필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양 계열 비슷한 반응을 보여 전체의 75%가 어느정도 필요하며, 12%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4. 종합 및 결론

1. 국내 4년제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한국 전통이론에 대한 지식 정도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필요 정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즉, 한국 전통이론 중 건축, 실내, 색채, 문양 등 세부요소에 대한 지식의 필요 정도, 동양의 전통디자인 이론수업의 필요정도,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

국성 도입 경험 시 이론 습득의 필요 정도, 지역성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 대학에서 배운 이론의 필요 정도 등에 대해 각각 전체 응답자의 94%, 94%, 97%, 99%가 어느정도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지식 정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전혀 충분치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0%대 임을 감안할 때 부족한 지식을 보완시키기 위한 이론 교육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2. 대학에 개설된 한국성 관련 이론과목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기에는 교과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양적으로 부족하다. 조사대상 역사관련 과목은 전체 학점 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2%였으며 이 교과목의 내용 가운데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은 59%에 불과하였다. 특히 연구대상 선정에서 서양건축사, 서양실내디자인사, 서양주택사 과목만이 개설된 대학은 이미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사례 중 14사례 만이 한국성 관련 이론을 다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교과목의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비교문화사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강의계획표 분석 결과, 단지 B대, D대, J대, L대, M대만이 동양의 문화를 언급하고 있었고, 강의 내용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3개 대학은 아시아 주변국의 전통에 대한 인지 정도가 전체 평균(77%)을 훨씬 웃돌을 뿐 때(전체 응답자의 85%, 93%, 96%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교과목 내용에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학문분류 계열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과학 대학의 경우, 학습 영역이 주거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국주거사나 한국주택사 등의 과목을 통해 한국주거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다루고 있는 반면(역사관련 과목에서 한국성이 차지하는 비율:78%), 전공실기 과목에서 한국성 도입 경험이 더 많은 디자인 계열은 이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이 소홀한 것(역사관련 과목에서 한국성이 차지하는 비율:4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자인 계열의 교과과정과 내용에 한국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지역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의 특수 문화를 다루는 이론과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전공 프로젝트에서 지역성 도입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성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거주 지역의 문화에 대한 평가는 격차를 보여 대부분의 학생이 지역문화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전라남북도의 학생들이 가장 자신의 지역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이 전공 프로젝트에서 지역성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가 가장 많은 것(42%)과 S대의 경우 호남역사와 문화라는 과

목을 개설하여 특수성을 부각시켜 교육시키는 것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타 지역에서도 한국성은 물론 지역의 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전통에 대해 축적한 이론이 부족할 경우, 해결방안으로서 서울의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참고서적에 의존하는 반면, 인근지역에 전통건축이나 미술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호남, 영남 지역의 학생들은 현장답사나 감상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는 경향이 있었다.

6. 대학간의 격차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한국인과 동양인의 조형의식 차이에 대한 인지정도의 경우 전통관련 역사 과목의 교과 내용이 100% 한국성으로 구성된 사례인 H대는 전체 응답자의 92%가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8%만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인 T대는 56%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4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공 프로젝트에서도 D대의 경우는 6%만이 지역문화 도입 경험이 있는 반면, L대의 경우는 60%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교과과정과 내용, 교강사의 관심, 학생들의 지식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7. 전공실기에서 한국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론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 프로젝트에서 한국성을 테마로 다루어 보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성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73%) 매우 필요하다(22%)고 응답했으며, 프로젝트에서 한국성을 테마로 도입하지 않은 첫째 이유로 디자인 계열은 한국성을 다루고 싶었으나 지식이 없어서(41%)로 응답한 것을 볼 때 한국성 관련 이론교육이 교과과정에 보완된다면 한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실기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실내디자인학회·회원명부, 사단법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 pp.147-153,
2. "연도별 면허 현황", "연도별 계약·기성 실적액 현황",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대한전문건설협회, 2000
3. "호텔로비에서 한국성에 기초한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22호, 한국디자인학회, p53, 1997
4. 한국건축 100년전, Interior Architecture Vol.6,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회, 1999
5. Design Conference, 2000, 지역문화와 디자인산업, 한국디자인학회, 2000
6. Interior Architecture vol.2,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회, p.15, 1999
7. [http:// www.cur.ac.kr/kor/daehak/main2html](http://www.cur.ac.kr/kor/daehak/main2html)

<접수 : 2001. 4. 30>